

Abstracts

A Study on the Context for Cooperation between Christian Alternative and Home Schooling in Korea.

By Kim, Sun-Yo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Christian studies in these days is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cooper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is is equally true in the field of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text of cooperation between Christian alternative and home schooling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e foundations and nature of each schooling system are analyzed and their common grounds are also explored in terms of goals, curriculum, teachers/parents and learners.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suggestions and practical guidelines are purposed:

1. Of crucial importance is cooperation in developing a legal system for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It should be noted that ‘compulsory education’ is not necessarily equal to ‘compulsory attendance of public school’.
2. We have to develop educational strategies to lower the barriers between the Christian alternative and home schooling. Students should easily move from one system to another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changes in their learning situations.

3. Christian alternative and home school should do their best to develop curriculums, resources and textbooks from elementary to secondary education. In the beginning it is necessary to translate some materials into Korean.
4. Christian school teachers and home schooling parents should develop in-service training programs together. They should include not only the curriculum contents but also the philosophies and methods of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5. The students in Christian alternative and home schooling need to expand their learning experience through exchange programs in sports, camps, field trips, academic and art activities and science exhibitions etc.
6. The facilitie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are encouraged to open to the home schooling parents for the educational activities. The home schooling parents should also participate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through voluntary activities such as events, meeting, and exhibitions.

***주제어**

기독교 대안학교, 홈스쿨, 홈스쿨링, 교육과정, 협력

I. 들어가는 말¹⁾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을 아우르는 기독교 대안교육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과 해체 움직임이 큰 몫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키고자하는 부모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대안교육은 현대 세속교육의 수경본이 아니라, 삶의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와²⁾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란 전체 교육과정에서 신앙과 학습이 통합되어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 대안학교는 흔히 말하는 미션스쿨, 즉 신앙과 학습을 이원론적으로 다루는 학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홈스쿨은 유기체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할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기독교 홈스쿨 그룹과 기존의 학교 교육 그룹 사이에는 적지 않은 긴장과 갈등관계가 표출되어온 역사를 갖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홈스쿨 운동 그룹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공교육을 주

1)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의 협력을 위한 기반탐색 이 연구는 2004년 1월 9~10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회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 정기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2)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란 전체 교육과정에서 신앙과 학습이 통합되어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 대안학교는 흔히 말하는 미션스쿨, 즉 신앙과 학습을 이원론적으로 다루는 학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하는 행정당국과 법정 소송을 치러야 했다. 또한 교원자격증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문제를 놓고도 교원단체와 긴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홈스쿨 그룹과 기존의 학교 그룹은 적지 않은 오해와 불신의 벽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최근에는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지 않게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육기관이나 단체는 자신의 독자적 기능과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문제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꾸준하게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문제는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독교 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크리스천은 공교육을 담당한 행정당국이나 교사들과도 꾸준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그들의 일부는 반 기독교적(anti-Christian)인 편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크리스천이 세속 사회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해야하고(눅 8:16), 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크리스천 학생과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과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기독교 홈스쿨과 기독교 대안학교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독교 홈스쿨의 부모와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사들은 서로 다른 콘텍스트에서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성경적 배경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동일하다면, 많은 부분에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험을 나눌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을 맡은 이들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아직도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홈스쿨이나 학교 교육의 역사가 일천한 이유도 있겠지만, 각각의 상이한 교육특성과 공통기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출발, 기독교 홈스쿨과 대안학교의 특성과 공통기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글의 2절과 3절에서 각각 기독교 홈스쿨과 기독교 대안학교의 토대와 성격을 기술하였다. 4절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이 공통적 기반으로 삼은 기독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자와 학습자와 같은 본질적 요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의 몇 가지 실천 가능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기초로 주로 기술적인 방법을 채택했다.

II. 기독교 대안학교의 토대와 성격

성경에는 학교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직접적인 표현하지 않고 있다.³⁾ 이로 인해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⁴⁾ 사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3) 유대주의 전통에서 어린이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성경책이 교육을 위한 중요한 교과서가 되었지만, 학교나 학교교육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된 바 없다.

4) 첫째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가르쳐야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성경시대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학교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경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지식이 많이 학교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학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학교교육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성경시대 초기교육은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이 부모들의 몫이었다(참조, 신 4:9). 가정교육 교육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회당이 발달해 감에 따라 젊은이들이 그 회당 안에서나 인근 건물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랍비의 집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⁵⁾ 신약시대 교육의 이상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잘 요약되어 있다:

“종말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

오늘날 기독교학교는 이러한 모형의 유산으로서, 가정과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부모에게 부여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믿음을 가진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서로 짐을 나누어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요즘도 홈스쿨링을 하는 두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수학’ 과목과 ‘음악’ 과목을 서로 나누어 가르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강한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따라서 현대에는 성경적 자료들은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는 두 번째 주장과 거의 반대되는 주장으로서 오히려 성경시대에도 학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5) 사도행전 19:9에서는 강의실을 지칭하면서 서원(학교)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회당(synagogue)은 신약시대 유대인의 집회장소로서, 복음서는 이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으로 언급하고 있다(눅4:16).

다. 기독교학교는 이러한 나눔의 과정을 좀 더 큰 규모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면 틀림이 없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를 조력하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보완적 성격을 기독교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기독교학교는 어린이들의 전체 교육을 독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가정이 그의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돕기 위해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먼저 어린이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학교는 가정과 जु다리기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 문제이다. 가정에 얼마나 많은 협력과 어린이들의 과제를 부과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기독교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는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특별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이 그러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참조, 엡 4:14~15). 성숙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가르침은 학교에서보다 가정이 더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개인적인 문제와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크리스천 성인과 어린이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신적인 교사들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려하지만, 부모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물론 부모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할 경우도 있다. 진리를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는데, 학교는 가정의 교육기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러한 기능의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 자체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기여하게 될 궁극적 목표에 대한 관점이 항상 소개되어야 한다(이러한 목표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그룹상황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대 교육이론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학급 전체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편이지만, 전문가로부터 소수의 학급을 가르치는 경우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III. 기독교 홈스쿨의 토대와 성격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적절한 교육제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반자관계(companionship) 또는 사귀의 원리일 것이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의 위력은 잠언 13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기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 이처럼 사귀이 어린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기독교 홈스쿨링에 있어서 자녀들과 지혜로운 사귀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지혜로운 동반자로서의 소명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귀의 원리는 부모가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보호할 책임은 물론 그 이상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혹은 좋지 않은 동반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모들이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

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 6장 6~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구절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열의가 없거나 우발적인 교육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이 엄격하고 딱딱할 필요는 없다. 부모와의 교육은 즐거우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도적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신명기 6장 7절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부모와 동반적 관계의 사감을 읽을 수 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삶을 위한 교육과정은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이며,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삶을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은 단순히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이다. 집에 앉아 있고 길을 걷고 일어나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부모로서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소명을 받았고,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을 가장 즐길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그 주변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홈스쿨은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홈스쿨 가정에서는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 교육의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홈스쿨링은 주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기회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묘판이나 온실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온화한 계절’을 통해 자녀들은 주안에서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양육 받게 된다. 홈스쿨을 통해 본래 가정이 갖고 있던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친절과 선교의 비전을 키울 수 있다. 한 가족으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자녀들의 또래 세대에 한정되지 않는 연령 통합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홈스쿨링은 교육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의 경우, 표준화 성취검사에 있어서 전국 평균을 웃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⁶⁾ 이처럼 홈스쿨링의 교육적 장점은 교실 수업을 능가하는 지도법의 우수성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과 1대 1로 대응하는 교사는 교실 상황에 있는 교사보다 적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덜 스트레스를 주면서 더 많은 진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튜터(tutor)식 지도방법은 학생들을 학습하는데 집중시키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한다. 즐거움은 성경적 학습의 기초가 되며, 이러한 원리는 단위학습(unit studies)을 통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다.⁷⁾

이처럼 기독교 홈스쿨링은 영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홈스쿨 가정에서나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적은 미국의 홈스쿨 운동에 관한 문헌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즉 부모의 역량은 홈스쿨링의 조력이나 교육과정 도우미, 혹은 현재 가용한 보조자료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역량이란 단지 지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준비를 갖추어 홈스쿨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홈스쿨이 기독교적이나 아니냐를 가름하는

6) 예를 들면, 공립고등학교 카운슬러인 와트(John Wartes)는 워싱턴주의 유치원-고3에 이르는 수백 명의 홈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스탠포드 성취검사(Stanford Achievement Test)를 수년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검사에서 그는 홈스쿨 학생들이 여러 학문영역(예, 독서, 언어, 수학, 과학)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평균 점수는 전국 표준의 67%를 기록하였다.

7) 예컨대,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야구 카드놀이는 숫자를 익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놀이를 통해, 노동관리와 협상, 인권운동의 역사, 약물 남용의 문제, 그리고 직업적 스포츠 비즈니스를 공부할 수 있다.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홈스쿨에 있어서 부모교육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훈련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간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아버지들에게 해당된다. 성경은 자녀들을 기르는데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잠 1:8), 아버지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엡 6:4). 농경이나 소규모 산업시대에는 남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며 일을 하는데 융통성이 있지만, 현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 홈스쿨이 우리나라보다 더 보편화된 나라에서도 많은 엄마들이 기독교 홈스쿨링을 위해 직장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남편의 홈스쿨 참여는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IV.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의 공통기반

기독교 홈스쿨과 학교는 그 성경적 토대와 출발한 기원, 성격 등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두 교육형태는 공통적 기반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공통기반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settings)은 다르다 할지라도 기독교 교육이라는 공통의 기반에서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서로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공통의 기반은 아주 다양하게 세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학습자, 그리고 교육자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의 목표

기독교 대안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 의해 구체화 될 수 있다. 즉,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창 1:26~27)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곧 교육의 과제와 목표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육목표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적절한 지식의 보고(寶庫)를 획득하는데 있다. 기독교적 교육철학은 자연주의에서처럼 순수하게 기능적이고 적자-생존적이거나, 혹은 인본주의에서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표현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대안교육의 포괄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responsible disciples)가 되도록 학생들을 돕고 인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 있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위임에 응답하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교육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는 인생의 참 목적이기도 하다(고전 10:31).

교육내용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도(弟子道)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적 지식 관에 기초,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팔머(Parker Palmer)는 세속적 지식관과 성경적 지식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세속적인 지식은 그 발원하는 원천이 인간의 ‘호기심’과 ‘지배’ 라면, 성경적 지식은 ‘연민’ 과 ‘사랑’ 에서 비롯된다. 세속적인

지식은 이성(理性)이 자율적(autonomous)이고 지배적(dominant)이어야 한다는 지적 전통(intellectual tradition)에 기초한다면, 성경적 지식은 영적 유산(spiritual heritage)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1991:29~31). 따라서 참된 지식은 첫째,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 둘째, 사람의 지성뿐만 아니라, 전인(全人)을 포함하며, 헌신과 응답과 봉사로 이끌어야 한다.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역사 하심을 지향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벤 브루멜른, 1996: 133).

따라서 기독교적 대안교육 과정은 세속교육 내용에다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요소를 외형적으로 추가한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내용은 개블라인(Frank E. Gaebelain)이 지적했듯이, 무엇보다도 ‘내적인 의미’를 충만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968:9). 여기서 성경적이라는 기준은 모든 교육과정이 성경에 근거를 두며, 성경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성경 아래에 있어 끊임없이 성경에 의해 판단되고 바로잡아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며,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분”(골 1:15~17)이라는 사실이 전 교육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자

모세가 이스라엘 어린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때로부터 어린이들의 교육은 분명히 부모의 책임이었다. 어린 시절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부모는 자녀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일차적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계속하게 된다. 기독교사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개블라인(Gaebelain)은 “기독교사 없이는 기독교 교육도 없다”(1968:35)라고 지

적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사는 누구인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사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이다. 교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독특한 장단점을 갖고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다. 교사에 대한 성경적 표준은 다음과 같다: (1)예수를 믿는 사람(고전 12:27~28); (2)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르치는 사역에 재능이 있는 자(롬 12:7; 고전 12:28; 엡 4:11~12); (3)참 교리에 충실한 자(딤후 1:3~7; 딤후 2:2); (4)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권위가 있고 성숙한 제자(딤후 3:1~7; 약 3:1); 그리고 (5)한 인간의 삶과 가르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있는 자(마 23:10; 딤후 4:12~16; 약 3:1)를 말한다.

학습자

기독교 대안교육의 아동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동 각 개인은 전적으로 종교적 존재로서, 피조적 의존이 불가피하다. 종교적 존재로서 아동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내재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고전 10:31). 피조적 존재로서 아동은 자율적이지 않고 독립적이기보다는 의존적이며,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다. 둘째로, 아동은 다른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타락하였다. 따라서 아동들은 한계와 결점과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며, 이는 자신들의 성장과 다른 사람과의 유대에 영향을 주게 된다(렘 17:9; 롬 3:23). 셋째로,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혹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엡 2:8~9; 롬 8:17; 갈 4:1~7).

이러한 아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우리는 모든 학습자는 변

화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확인할 수 있다. 성경적 아동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파괴적인 아동의 성품과 행동은 교정되거나 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학습자는 그의 행동과 죄성(罪性), 그리고 그의 응답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에 관한 시각은 학생의 잠재력과 책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가 얼마나 이 역할을 수행하느냐는 그들의 연령과 주안의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V.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의 협력방안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이 성경적 토대와 출발한 기원, 성격은 비록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여러 공통의 기반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양자의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하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홈스쿨에서 사용되는 교재나 참고자료는 기독교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응용은 필요하겠지만,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학습자와 교육자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두 체제가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양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서로가 보완함으로써 조직체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8:8)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각 홈스쿨과 기독교 대안학교의 연합 차원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와 지역의 홈스쿨 부모 사이에도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모색은 최근 미국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주로 홈스쿨과 기존의 학교(주로 공립학교)사이의 협력 관계를 모색해왔다. 1980년대 초반 홀트(John Holt)는 기존의 학교가 홈스쿨과 가정과 함께 일하고 홈스쿨 어린이들을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받아들임으로서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한 바 있다. 그는 홈스쿨 어린이들이 “상당한 에너지와 열심, 지력, 자기 동기, 그리고 독립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이러한 연구는 노울즈(1983)의 연구를 통해서도 홈스쿨 학생들은 경험학습 활동(예, 미술, 음악 등)과 대단위 그룹과 팀 활동(예, 밴드, 체육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협력관계의 모색보다는 자체 조직의 정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은 협력할 마음이 부족하다거나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체 조직이 해야 할 일이 그 만큼 산적해 있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 그것은 홈스쿨이나 기독교 대안학교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홈스쿨과 학교의 역사가 짧은데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기독교 교육계는 분열하기보다는 협력함으로써 한 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시키고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기

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독교 홈스쿨과 기독교 대안학교 그리고 이들의 연합과 협의기구를 통해 혹은 다른 채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실천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1.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화를 위한 협력이 시급하다. 의무교육 기간이 우리나라보다도 긴 선진국에서는 공교육체제와 별도로 기독교 홈스쿨이나 대안학교와 같은 대안교육 체제를 수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등식화(等式化)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 취학을 시키지 않고도 의무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들 나라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야 한다. 학습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홈스쿨링을 시행하다가도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학교교육을 받다가도 홈스쿨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학기나 학년별로 이루어지거나 교과목별로 교차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⁸⁾

8)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대학모형”(university model)이라고 부르고 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정된 코스를 듣지만, 자신들 스스로 과제를 이수하는 대학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3. 기독교 홈스쿨과 학교는 공동으로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 몇몇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 가정에서는 현재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하루 빨리 우리들의 손으로 교재와 교육 참고자료 집필되어야 한다. 몇몇 교재가 집필을 진행 또는 준비중에 있고, 또한 영어권의 기독교 교육자료가 우리말로 번역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더욱 협력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기독교 대안학교는 그들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홈스쿨 학부모들에게 개방하고, 또한 홈스쿨 학부모 연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에게 개방하고 때로는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주요 교과목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러한 교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 교수의 철학을 소개하고 홈스쿨 학부모들은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자녀 학습 지도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5.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공통적 학습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스포츠, 캠프, 학습여행, 학술 및 예술활동, 과학 전, 사회봉사 등 그 활동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넓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그룹과 개인적인 경험을 교류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고 협력의 장을 넓이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독교 대안학교의 시설 및 각종 서비스는 홈스쿨 학부모들에게도

열려있고, 홈스쿨 학부모는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실과 자료실은 지역 내의 홈스쿨링 학부모를 위해서 소장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교육자료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 대안학교는 홈스쿨이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 예컨대 홈스쿨 회의나 전시회 등의 행사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는 말

기독교 대안교육은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교육” 혹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교육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대안교육은 현대 세속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의 수정본이 아니라 삶의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교육을 의미한다. 르바(Lois E. Lebar, 1995)가 지적했듯이, “교육은 본래 기독교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이라는 단어 앞에서 ‘기독교’나 ‘대안’이라는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김선요, 2002: 19).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기독교 대안교육의 관심은 앞에서 고찰한 기독교 대안학교와 기독교 홈스쿨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분야는 기독교 대안교육운동을 받치는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은 정부로부터 인가 혹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물론,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기독교 대안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성화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이들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미션스쿨 형태를 벗어나 기독교 학교(Christian school)의 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홈스쿨 운동 역시 그 사역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한해 동안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66,000명에 이른다는 최근 교육부 통계는 우리나라 기독교 홈스쿨링의 잠재력을 가늠하게 한다.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홈스쿨 인구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은 기독교 대안교육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기독교 대안교육운동의 기독교 대안교육 운동의 양면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독교 대안학교나 홈스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운동을 뒷받침할 협력과 헌신에 있어서는 높은 관심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관심만으로 교육의 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맘흘려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뒤에 오는 후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대안학교나 홈스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하나 제대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 앞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이 힘을 모아야 할 과제는 교재개발을 포함하여, 기독교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해외협력과 자료번역, 교사연수, 학부모 교육, 해외협력 등 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일차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 운동에 참여하고자하는 크리스천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일들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전국 요소요소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결코 소유하지 않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부분들을 내어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축복해주셨다.

노아가 배를 지을 때에는 홍수가 닥치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히 11:7)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이 협력하여 기독교 대안교육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은 쨍쨍 햇볕이 쏘이는 날 방주를 만든 것과 흡사하고 별로 쓸모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치수대로 어김없이 배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은 요긴하게 쓰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배도 노아의 것처럼 요긴하게 쓰일 것을 확신한다.

참고문헌

- 김선요 (2001). “현대 교육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 해석” 『사회과학논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연구소) 7: 95~115.
- ____ (2002). “기독교 대안교육, 도전과 도약.” (기조강의). 『기독교 대안교육, 도전과 도약』. (제2회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 세미나 보고서). 서울: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
- 김선요 (2003). “현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성경적 비판과 해석”, 『사회과학논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 57~72.
- 반 브루멜른, 해로 (1996).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서울: ivp.
- 팔머, 파커 (박원호 역) (1991). 『기독교 교육 인식론』. 서울: 도서 출판 광나루.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1994). 『성경사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Gaebelein, Frank E. (1968). The Pattern of God's Truth. Chicago: Moody Press.
- House, H. Wayne (1988). Schooling Choices: An Examination of Private, Public & Home Education. Portland, Oregon: Multnomah.
- Holt, J. (1983). “Schools and Home Schoolers: A Fruitful Partnership.” Phi Delta Kappa. Vol. 64, Pp 391~394.
- Knowles, J. G. (1989). “Cooperating with Home School Parents: A New Agenda for Public Schools?” Urban Education. Vol. 23, Pp 392~411.
- Lebar, Lois E. (1995). Education that is Christian. Victor Books.
- McDowell, Susan A. and Brian D. Ray (2000). The Home Education Movement in Context, Practice, and Theory.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Vol. 75, No. 1 & 2, 2000) Mahwah, New Jersey and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yberry, Maralee et al. (1995). Home Schooling: Parents as Educators. Thousand Oaks, California: Corwin Press.
- Weeks, Noel (1988). The Christian School: An Introduction. Carlisle, Pen.:The Banner of Truth Trust.

김선요 교수는

1949년 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독교학문연구소 교육학분과 책임과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 대표간사직을 맡고 있다. “현대 교육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 해석”, “기독교 대안교육, 도전과 도약”, “현대 교육철학의 이론: 성경적 비판과 조명” 등 여러 편의 교육학관련 논문이 있음.